

한국 고대 신모(神母)와 국가제의(國家祭儀)

-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

채미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I. 머리말

건국신화는 초현실적·초자연적인 내용을 전함과 동시에 국가의 창업이라는 역사적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 역시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가 있다. 이러한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다.¹⁾ 이중 신모(神母)²⁾는 건국 영웅을 낳고 그들을 기르며 새로운 국가를

※ 투고: 2016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6년 4월 20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 1) 한국 고대 건국신화, 특히 신모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강영경, 2012, 「단군신화에 나타난 웅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위상」, 『사학연구』 99; 채미하, 2006,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채미하, 2014,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나희라, 2009, 「대가야의 신화와 의례」, 『대가야의 정신세계』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건국신화의 시조모 내지는 시조비는 地母·聖母·神母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 중 지모는 천신과 대응되는 地神을 말한다. 성모는 신의 배우자 혹은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자체 신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조의 어머니와 시조의 비를 신모라고 하였다.

건설 내지는 건설하기 위해 떠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조의 조력자로 나온다. 이와 같은 신모로는 고조선의 웅녀와 고구려의 유화, 백제의 소서노, 신라의 선도산 신모³⁾와 알영, 금관가야의 허왕후, 대가야의 정견모주가 있다. 그리고 이들 신모는 죽은 후 국가제의를 대상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신모에 대한 이해는 한국 고대 건국신화를 분석하면서 다루어져 왔고⁴⁾ 국가제의를 통해서도 살펴졌다.⁵⁾ 하지만 시조와 비교해 볼 때 신모는 부수적이었다. 때문에 건국신화에 보이는 신모의 변화상에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신모는 죽은 후에 국가제의를 대상이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한국 고대 신모의 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화와 선도산 신모는 고려시대 동신성모로 전한다. 그런데 선도산 신모가 고려시대 동신성모로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또한 한국 고대 신모가 고려시대 이후 역사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모의 유형을 검토하고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신모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역사성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 신모의 추승을 국가제의와 연결하여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동신성모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變移)를 검토할 것이다.

-
- 3) 선도산 신모는 서술성모·선도성모로도 불렸으나, 이 글에서는 선도산 신모로 통일하였다.
 - 4) 고조선·고구려·백제의 건국신화를 天父地母型, 신라·가야의 건국신화를 부부중심의 天男地女形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지영, 1995,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대한 연구』, 태학사, 160쪽.
 - 5) 신모에 대한 신앙은 한국 고대사회에 天父신앙과 함께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상기, 1964, 「國史上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 5-1,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22~23쪽; 김철준, 1990,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II. 신모의 유형: 시조모와 시조비

한국 고대 각국의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시조의 어머니와 시조의 비는 신모였다. 우선 시조의 어머니, 시조모로는 고조선 건국신화에 보이는 웅녀가 있다. 웅녀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꿈이었으나 신의 아들 환웅에게 사람되기를 빌어 환웅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사람이 되었고 또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여 인간으로 변한 환웅과의 결합을 통해 단군을 낳았다.⁶⁾ 고구려 건국신화의 유화는 하백의 딸로 해모수와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 이후 주몽에게 궁시(弓矢)를 만들어 주었으며 기마하기에 좋은 말을 가려내어 키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박해를 피해 떠나는 주몽에게 오곡의 종자와 보리종자를 보내주었다.⁷⁾

이처럼 웅녀와 유화는 천신의 배우자이자 시조의 어머니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주목된다.

A-1) ① 최치원의 釋利貞傳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正見母主는 천신 夷毗訶之에 응감한 바 되어, 대가야왕 惱室朱日과 금관국왕 惱室靑齋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 하였다. 그러나 가락국 옛 기록의 ‘六卵의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② 또 釋順應의 전기에는 대가야국의 月光太子는 正見의 10대손이요, 그의 아버지는 異腦王이며, 신라의 迎夷粲 比枝輩의 딸에게 청혼하여 태자를 낳았으니, 이 뇌왕은 뇌질주일의 8대손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참고할 것이 못된다.⁸⁾

6) 『삼국유사』 1 기이 1 고조선.

7)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된 문헌과 그 연구 성과는 재미하, 2006, 앞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신증동국여지승람』 29 경상도 고령현 건치연혁, “1) ①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

2) 正見天王祠는 해인사 안에 있다. 속설에는 “대가야국 왕후 정견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⁹⁾

위의 사료 A-1) ①을 보면 최치원이 쓴 석이정전(釋利貞傳)을 인용하여 가야산신 정견모주는 천신 이비가지에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를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A-2)에서 해인사의 정견천왕사에 모셔진 정견은 본래 대가야의 왕후로 죽어서 가야산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¹⁰⁾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나온 수로가 금관가야를 건국했으며 바다를 건너온 허왕후와 결혼함으로써 건국을 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¹⁾ 그런데 사료 A-1) ①에서는 정견모주가 천신에 감응되어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시조를 낳았다는 것이다.¹²⁾ 다음은 신라의 선도산 신모에 대한 내용이다.

B-1) 따라서 이름을 혁거세왕이라고 했다(아마도 鄉言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며 光明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① 說者가 말하기를 “이는 西述聖母가 낳은 것이다. 때문에 중국 사람이 仙桃聖母를 찬미하는 글에 ‘어진 인물을 배어 나라를 창건하라’는 말이

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金官國王惱室青齋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歧王之別稱 青齋爲首露王之別稱 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婁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이와 관련해서 『삼국사기』 34 잡지3 지리1 고령군조도 참고하기 바란다.

- 9) 『신증동국여지승람』 30 경상도 합천군 사묘, “正見天王祠(在海印寺中 俗傳大伽倻國王后正見 死爲山神)”.
- 10) 천혜숙, 2002, 「‘父性 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12~13쪽에서 정견모주를 신라의 선도산 신모와 같은 유형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 11)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 12) 가야의 신화와 그 의례에 대해서는 나희라, 2009, 앞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견모주 설화는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연맹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데, 이것이다. ② 이에 이르러 雞龍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으니, 또한 西述聖母가 현신한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¹³⁾

- 2) ① 신모는 본래 中國帝室의 딸이다. 이름은 娑蘇이다. 일찍이 神仙의 술법을 배워 海東에 와서 머물러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인 황제는 서신을 발에 매어 말하기를, “鶯이 머무는 곳을 따라 집을 삼거라”고 하였다. 사소는 서신을 보고 매를 놓아 보냈는데, 매는 이 산에 날아와 멈추었다. 마침내 가서 살며 地仙이 되었다. 때문에 西鶯山이라고 이름하였다. ② 신모는 오랫동안 이 산에 據하면서 나라를 鎮祐하였는데, 靈異함이 아주 많았다. 나라가 건립된 이래로 항상 三祀의 하나였고 秩은 群望의 위에 있었다. …… ③ 그가 처음 진한에 와서 聖子를 낳아 東國의 처음 임금에 되었다. 아마도 혁거세와 알영 二聖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雞龍·雞林·白馬 등으로 일컬으니, 닭은 西쪽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¹⁴⁾

위의 사료 B-1) ①·②에서 설자(說者)는 서술성모가 혁거세를 낳았고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낳은 알영을 서술성모의 현신이라고 하였으며 B-2) ③에서는 신모가 성자를 낳았고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다고 하면서,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선도산 신모에서 찾고 있다.¹⁵⁾

13)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혁거세왕, “1) 因名赫居世王(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言光明理世也 ① 說者云 是西述聖母之所誕也 故中華人讚仙桃聖母 有娠賢肇邦之語是也 ② 乃至雞龍現瑞 產闕英 又焉知非西述聖母之所現耶)”.

14) 『삼국유사』 5 감동 7 선도성모수희불사, “2) ①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 隨鶯所止爲家 蘇得書放鶯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鶯山 ② 神母久據茲山 鎮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 ③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蓋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 故稱雞龍雞林白馬等 雞屬西故也”.

15) 『삼국유사』에는 선도산 신모가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하여 『삼국사기』와는 달리 혁거세와 알영이 남매로 나온다. 이것은 선도산 신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이처럼 선도산 신모는 신라의 시조 혁거세와 그의 비 알영의 등장에 일정한 역할을 한 시조모로 나타나지만, 용녀·유화·정견모주와는 달리 친신의 배우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알영과 허왕후는 시조의 조력자인 시조비로, 시조모와 마찬가지로 신모로 여겨졌다. 다음은 알영 관련 내용이다.

C-1) ① 봄 정월, 용이 關英井에서 나와 右脇에서 女兒를 낳았다. 老嫗가 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 이름으로 이름하였다. ② 성장함에 德容이 있었다. 시조가 듣고 맞아서 妃로 삼았다. 賢行이 있고 內輔가 能하였다. ③ 이때 사람들이 二聖이라 일렀다.¹⁶⁾

2) ① 이 날, 沙梁里의 알영정(娥利英井이라고도 한다)가에 雞籠이 나타나 左脇에서 童女(용이 나타나 죽자 그 배를 갈라서 얻었다고도 한다)를 낳았다. ② 姿容이 수려하였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비슷하여 月城의 北川에서 목욕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따라서 그川 이름을 撥川이라 했다.¹⁷⁾

위의 사료 C-1) ①과 C-2) ①을 보면 알영정에서 용(계룡)이 나타나 알영을 낳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출생한 알영은 사료 C-2) ②를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아 월성 북천에서 목욕시키자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알영은 C-1) ②를 보면 성장 후 혁거세와 혼인하여 시조를 잘 보필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알영은 혁거세 재위기간 동안 중요한 파트너였음을

16)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시조혁거세거서간 5년, “1) ① 春正月 龍見於關英井 右脇 誕生女兒 老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 ② 及長有德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 能內輔 時人謂之二聖”.

17)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혁거세왕, “2) ① 是日 沙梁里關英井(一作娥利英井) 邊 有雞籠現 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而剖其腹得之) ② 姿容殊麗 然而唇似雞 將浴於月城北川 其鬚撥落 因名其川曰撥川”.

알 수 있다.¹⁸⁾ 이러한 알영은 C-1) ③에서 시조와 함께 이성(二聖)으로 여겨졌는데, ‘이 때[時]’는 신라 중대 이후로 알영은 시조와 함께 여전히 추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허왕후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후한 광무제 건무 24년(48)에 배를 타고 김해 가락국에 도착하였고,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은 이를 미리 알고 그녀를 기다려 왕비로 맞이하였다.²⁰⁾ 그 후에 허왕후는 태자 거등왕을 출산하고 후한 영제(靈帝) 중평(中平) 6년(189)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공은 도산씨가 하나라를 돕고 요임금의 딸들이 순임금의 요씨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하였다.²¹⁾ 이로 볼 때 허왕후 역시 알영과 마찬가지로 시조의 조력자로 수로왕과의 혼인 이후 시조비로서 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제 건국신화에 나오는 소서노는 시조비이자 시조모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시조의 어머니 소서노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로 처음에는 북부여에 가서 우태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졸본에 와서 살았는데,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하여 졸본에 오자 소서노는 주몽의 비가 되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다. 이후 주몽이 부여에서 온 유리를 태자로 삼자 소서노는 비류·온조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웠다.²²⁾

18) 이와 관련해서 혁거세 17년(B.C. 41)에 혁거세가 육부를 巡撫할때 알영이 함께 따라갔다고 한 것도 참고가 된다.

19) 채미하, 2014, 앞의 글, 187~188쪽 참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혁거세 38년(B.C. 20) 마한에 간 호공이 두 사람을 이성이라고 한 것, 남해차차웅 원년(4)의 두 사람을 지칭한 이성(二聖),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의 이성과 선도산성모수희불사조에 보이는 이성 역시 중대 이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21)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 況與王后而居也 比如天之有地 日之有月 陽之有陰 其功也塗山翼夏 唐煖興嬌 頻年有得熊羆之兆 誕生太子居登公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 壽一百五十七 ……”.

22)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즉위년.

이상에서 신모는 시조모와 시조비로 크게 대별되며, 이 중 시조모는 천신과 혼인하거나 배우자 없이 아들을 낳아 기르는 존재였다. 그리고 시조모이자 시조비이기도 한 소서노가 있었다. 시조모와 시조비의 선후관계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집단의 근원이 되는 시조가 여성에 있다는 시조모에 대한 관념은 대체로 부계중심 신화 이전에 모계중심으로 서술하는 신화적 전통에 있었다고 한다.²³⁾ 즉 시조모에 대한 전승은 시조와 시조비 이전 단계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서노 관련 전승은 부계출계 사회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²⁴⁾

인간이 대지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은 동서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신앙이다. 대지는 살아 있는 형태를 자신의 본질로부터 끌어내어 발생시킨다. 대지는 비옥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대지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생명이 부여되며, 대지로 돌아간 모든 것은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²⁵⁾ 동·서양의 고대 신화와 의례의 유형을 보면 대지는 우주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만물을 낳고 열매를 맺는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가치가 부여되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²⁶⁾ 농경사회에서 대지는 어머니로 이해되었으며 점차 지모신은 경작과 수확 즉 농경의 여신으로 대체되어갔다.²⁷⁾ 이것은 한국 고대 신모 역시 마찬가지로 지모신인 어머니는 농업신, 곡모신의 성격을 띠었다.²⁸⁾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신모, 이 중 시조모는 비범한 시조를 낳고, 기르고 시조를 도와 건국에 일조했지만, 시조의 활동 시기에 시조모는 보이지 않는다.

23) 조현실, 2003,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57~258쪽. 천혜숙은 선도산 신모 신화의 '不夫而孕' 요소는 모권제 또는 모계제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천혜숙, 2002, 앞의 글, 23~24쪽.

24) 천혜숙, 2002, 위의 글, 28쪽.

25) 멀치아 엘리야데, 1993, 『종교사개론』, 55쪽.

26) 멀치아 엘리야데, 1993, 위의 책, 230, 249~250쪽.

27) 멀치아 엘리야데, 1993, 위의 책, 235쪽.

28) 장지훈, 1999,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사학연구』 58·59, 81쪽; 한영화, 1999, 「고구려 지모신신앙과 母處制」, 『사학연구』 58·59, 208~215쪽; 앞의 주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유화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서 키워내는 역할까지 수행하였고 선도산 신모가 낳은 혁거세와 알영은 6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웅녀 역시 단군을 낳았지만,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제왕운기』에는 환웅의 손녀로 웅녀가 나오며 그녀에게 약을 먹도록 명령하고 단수신과 혼인을 시킨 주체가 환웅이라고 하였다. 권근의 『응제시』에는 환웅과 웅녀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단군이 신인으로서 직접 신단수에 내려왔다고 하였다(檀君降樹邊位臨). 권람의 『응제시주』에는 환웅이 모든 것을 주도한 주체로 되어 있는데,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만 기도하고 쑥과 마늘을 준 것도 환웅이며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단군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단웅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의 모습을 이루게 한 후 단수신과 혼인시켜 남성인 단군이 태어났다고 하였다.²⁹⁾

이에 대해 웅녀를 ‘남성중심 사회의 문화구범’,³⁰⁾ ‘주체적 존재를 상실한 타의에 의하여 존재여부를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³¹⁾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존재 …… 소외된 존재, 즉 타자화된 존재’³²⁾ 등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웅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모도 마찬가지로, 신모는 신화의 뒤편으로 소외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 권력이 여성 중심에서 남성 중심으로 변해가고 집단 간 투쟁의 결과 선주집단이 이주집단에 종속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³³⁾

29) 강영경, 2012, 앞의 글, 58~62쪽 참고.

30) 신은희, 2002, 「그 신비한 춤 단군신화에 나타난 성 상징주의」, 『단군학연구』 6, 14~15쪽.

31) 최문형, 2000, 「단군신화의 여성상과 여성원리에 나타난 통일이념」, 『단군학연구』 4, 137~139쪽.

32) 조현설, 1999,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조현설, 2003,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사, 11쪽.

33) 최원오, 2003,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전변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 24, 281, 298~299쪽; 서대석, 1998, 「일본신화에 나타난 新婦과 神誕生의 성격 - 한국의 신화 및 농경의례와의 對比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4; 서대석, 200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조현설, 1999, 앞의 글, 5~10쪽; 조현설, 2006,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19~20쪽.

고구려 건국신화는 5세기에 주몽신화로 확립되는데, 이것은 부여의 동명신화를 차용한 것³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5세기 이전 고구려 건국신화는 동명신화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논형』·『삼국지』 등에 보이는 부여의 건국신화는 고구려 초기 건국신화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동명의 어머니는 ‘시비(侍婢)·시아(侍兒)’로 나온다. 5세기 「광개토왕릉비」 등의 비문 자료와 『위서』 등의 중국 사서에는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녀’로, 수신(水神)의 딸로 나온다. 하백녀는 부여신으로 불려졌는데, 그녀가 부여족의 공동시조를 낳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이후 역사서인 『구삼국사』 등에는 ‘하백녀 유향’로 나오며, 수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농업신적 성격도 띠면서 ‘신모’로 불려졌다.³⁵⁾

B-2) ①을 보면 선도산 신모는 중국 제실(帝室)의 딸인 사소로 해동에 와서 오래 머물다 마침내 서연산에 와서 살고 지선(地仙)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우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6촌 세력이 갖 태어난 혁거세·알영을 발견하고 양육하는 데 주체적으로 등장하였다.³⁷⁾ 선도산 신모가 중국에서 진한에 도래한 시기는 대체로 6촌의 시조들이 사로국에 등장할 때와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한다.³⁸⁾ 선도산 신모가 웅거한 곳은 서연산·서술로, 모량 지역이었다. 모량은 6촌의 하나인 무산대수촌의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무산대수촌, 모

34) 이종태, 1996,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45, 53쪽; 조현설, 2003, 「한국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44~255쪽 참고.

35) 이상과 관련해서 채미하, 2006, 앞의 글 참고.

36)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낳았다고 전해지는 선도산 신모는 본래 도교의 女仙으로 한반도에 건너와 선도산에 정착한 이른바 도래신이라고 하였다. 정재서, 2009, 「도교 설화의 정치적 專有와 민족 정체성」, 『도교문화연구』 31, 16~19쪽. 한편, 김선주, 2010, 앞의 글, 13~15쪽에서 시조모 전승에서 시조모와 관련이 있는 시조는 혁거세가 아닌 시조비로 알려진 알영으로 보았다.

37)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시조 혁거세거서간 원년;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 혁거세왕.

38) 채미하, 2011,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90~92쪽.

량부 세력과 선도산 신모가 어느 시기에 연합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³⁹⁾ 이것은 신라 중고기를 전후한 시기로 여겨지는데, 신라 중고기 모량부 박씨 왕 비족의 등장은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⁴⁰⁾ 사료 B-2) ①에서 선도산 신모는 중국 제실의 딸이라고 한다.⁴¹⁾ 이것은 중대왕실이 자신의 시조를 소호금 천씨에서 찾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⁴²⁾

이와 같이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유화와 선도산 신모는 시기에 따라 그 인식에 변화가 있었지만, 웅녀와는 달리 건국신화에서 소외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시기에 따라 그녀들의 고유한 역할인 시조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이로 볼 때 유화와 선도산 신모는 건국신화에서 소외되었다기 보다는 한국 고대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역사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9) 임재해는 6촌신화는 단군신화의 부계인 환웅신화를 계승하고 선도산 신모신화는 모계인 곰신화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계신화는 선도산 신모가 혁거세를 낳은 출생신화로, 부계신화는 혁거세를 발견한 난생신화로 분화되고 발전되어 전승되고 기록되었다. 임재해, 2007,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비교민속학』 33, 590쪽.

40) 채미하, 2011, 앞의 글, 95~96쪽.

41) 이에 대해 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211쪽에서 고유의 산신신화가 모화사상이 혹은 한국인으로 중국에 이주한 자에 의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부회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이지영, 1995, 앞의 책, 161쪽에서 중국의 색으로 윤색된 북방 무조적 이야기로 건국신화의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 조동일, 1999, 「시조도래 건국신화의 시조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41~142쪽에서 선도산 신모 전승은 시조도래계 신화로 중세 의식을 덧씌운 것이라고 하였다.

42) 채미하, 2014, 앞의 글, 186쪽.

III. 국가제의와 신묘의 추승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신묘는 죽은 이후 국가제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이 주목된다.

D-1) 가을 8월 王母 柳花가 東扶餘에서 죽었다. 그 왕 金蛙가 太后의 禮로써 그녀를 장사지냈고 마침내 神廟를 세웠다. 겨울 10월 사신을 부여에 보내 方物을 바치고 그 덕에 보답하였다.⁴³⁾

2) 겨울 10월 왕이 부여에 行幸하여 太后廟에 제사지내고 백성 중 곤궁한 자를 묻고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⁴⁴⁾

3) 古記에 말하였다. ① 동명왕 14년 가을 8월 王母 柳花가 동부여에서 죽었다. 그 왕 金蛙가 太后의 예로써 그녀를 장사지냈고 마침내 神廟를 세웠다. ② 태조왕 69년 겨울 10월 부여에 行幸하여 太后廟에 제사지냈다.⁴⁵⁾

위 사료 D는 고구려 태후묘와 관련된 것으로, 동명왕 14년(B.C. 24) 8월에 동명왕의 어머니가 동부여에서 죽자 금와왕이 ‘태후’의 예로 장례를 지내고 신묘(神廟)를 세웠다고 한다(1)과 3) ①). 이처럼 유희를 모신 태후묘는 금와왕이 세운 것으로 고구려 영역 밖에 있었다. 그렇지만 D-1)에서 동명왕은 사신을

43) 『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시조동명성왕 14년, “秋八月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冬十月 遣使扶餘 饋方物 以報其德”.

44) 『삼국사기』 15 고구려본기 3 태조대왕 69년, “冬十月 王幸扶餘 祀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45)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古記云 ① 東明王十四年秋八月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② 太祖王六十九年冬十月 幸扶餘 祀太后廟”.

보내 그 덕에 보답하였고, D-2)와 D-3) ②에서 태조왕은 왕 69년(121) 10월에 부여에 순행하여 태후묘에 제사지내고 있다. 이로 볼 때 고구려에서는 유화가 죽은 후 그에 대한 추송을 태후묘에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⁶⁾

이와 관련하여 백제에서는 온조왕 13년(B.C. 6) 2월 왕모 소서노가 죽자 온조왕 17년 4월에 묘를 세워 국모를 제사하였다고 한다.⁴⁷⁾ 이로 볼 때 백제도 고구려 태후묘와 유사한 사당을 소서노가 죽고 나서 4년 뒤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온조왕은 왕모 소서노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국모가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니 국세가 안전하지 못해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겠다고 하였다.⁴⁸⁾ 아마도 이때부터 소서노는 국모로 여겨졌고 국모묘에 대한 건립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국모묘를 건립한 이후 국모묘에 대한 제사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소서노를 국모묘에서 제사지냈을 것이다.⁴⁹⁾

46) 이상은 재미하, 2006, 앞의 글, 342~344쪽 참고.

47)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13년, “春二月 王母薨 年六十一歲”;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17년, “夏四月 立廟以祀國母”. 그런데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백제에서 국모묘를 세웠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고구려와는 다른 점이지만, 소서노가 국모로 제사된 것은 그녀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영경, 1982, 「한국고대사회의 여성 - 삼국시대 여성의 사회활동과 그 지위를 중심으로 -」, 『숙대사론』 11·12, 158쪽.

48) 『삼국사기』 21 백제본기 1 시조 온조왕 13년, “夏五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 國母棄養 勢不自安 必將遷國 予昨出巡 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郡於彼 以圖久安之計”.

49) 백제에서는 온조왕 20년(2), 온조왕 38년, 다루왕 2년(29), 고이왕 10년(243), 비류왕 10년(313)에 ‘祠(祀)天地’했다고 하며, 고이왕 5년, 고이왕 14년, 근초고왕 2년(347), 아신왕 2년(393), 전지왕 2년(406)에 ‘祭天地’하였다고 한다. 중국 고대 농경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제사는 社제사라는 국가의례로 발전하였고, 漢代에 郊社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신은 北郊에서의 地神과 사직에서의 토신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전자는 대지 전체를 상징하는 지모신으로, 后土·皇地祇·崑崙大地 등이, 후자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영토신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사직과 神州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박미라, 2006, 「중국 제사체계에 나타난 地神의 이중적 성격」, 『도교문화연구』 25, 59~60쪽.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백제의 태후묘 제사는 천지 제사와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유화는 태후묘뿐만 아니라 수신제(隧神祭), 부여신묘(扶餘神廟)에서 ‘태후’, ‘수신’, ‘부여신’으로 고구려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다. 태후묘가 ‘동명왕의 모후’에 대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태조왕대 이후 주몽을 국조로 하는 국조의식이 성립되면서 유화는 국모로 여겨졌고 그녀에 대한 제사는 수신제에서 이루어졌다.⁵⁰⁾ 수신제는 유화의 주몽 잉태와 출산신화를 압록강 가에서 재현한 의례였다. 그리고 유화는 부여족의 공동시조를 낳았기 때문에 부여신으로도 불려졌고, 부여신묘에서 그 제사가 행해졌다.⁵¹⁾ 부여신은 ‘각목(刻木)한 부인상’으로 나타나며 목수(木隧)로 나타난 수신보다는 구체적인 것으로 고구려 국모뿐만 아니라 부여족 전체의 어머니로 추송되었다.⁵²⁾

이처럼 유화는 죽은 이후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고 고구려 말에는 주몽⁵³⁾과 마찬가지로 유화에 대한 신앙은 전국적으로 퍼져있었다.⁵⁴⁾ 이러한 추송은 금관가야의 허왕후에서도 찾아진다. 허왕후는 영제 중평 6년(189) 3월 1일에 죽었다[崩]. 이 후 나라사람들이 구지(龜旨)의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고, 그녀를 잊지 못하여 왕후가 처음 배에서 내려 배를 매어둔 나룻가의 마을을 주포촌이라고 이름하고 비단바지를 벗은 산마루를 능현(綾峴)이라 하고 꼭두서니빛 깃발이 나타나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고 하였다.⁵⁵⁾ 8대 질지왕은 452년에 수로왕과 허왕후의 혼례 장소에 왕후사(王后寺)를 창건하기도 하

50) 수신제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지』·『후한서』·『구당서』·『신당서』·『한원』에 보인다.

51) 부여신묘와 관련해서는 『복사』·『주서』를 통해 알 수 있다.

52) 이상은 재미하, 2006, 앞의 글, 363~364쪽 참고.

53)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고려; 『주서』 49 열전 41 이역상 고려; 『책부원귀』 369 장수부 공취 2 이적 참고.

54) 『삼국사기』 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 5년, “東明王母塑像 泣血三日”;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고려조 참조. 이상은 재미하, 2006, 앞의 글, 365쪽.

55)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忘子愛下民之惠 因號初來下纜渡頭村曰主浦村 解綾袴高岡曰綾峴 茜旗行入海涯曰旗出邊 媵臣泉府卿中輔 ……”. 이와 관련된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김태식, 1998,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26~2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였다.⁵⁶⁾ 이로 볼 때, 허왕후는 죽은 이후 금관가야인에게 신앙의 대상이었고, 그녀에 대한 추송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이 중 질지왕이 수로왕과 합혼한 곳에 세웠다는 왕후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수로왕부인사(首露王夫人祠)를 절로 바꾼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⁵⁸⁾

한편, 고구려와 달리 신라에는 박·석·김 3성의 시조신화가 있었고 이들과 관련된 제사 역시 이루어졌다. 남해왕 3년(6)에 설치된 시조묘⁵⁹⁾에는 박씨집단의 족조(族祖)인 혁거세를 모셨다가 아달라왕대 신라연맹체의 제천이 사로국의 시조묘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혁거세는 국조가 되었고, 신라 상고기 내내 시조묘의 주신이 될 수 있었다. 소지왕 9년(487)에 설치된 신궁의 주신은 혁거세로,⁶⁰⁾ 혁거세는 전(全) 국가적 시조왕의 성격을 지녔다. 이와 같이 시조묘와 신궁에서 혁거세가 그 제사의 주신이었지만, 신라 중대에 오묘제⁶¹⁾가 성립되면서 국조인 혁거세를 모신 신궁제사는 김성시조를 모시는 오묘제 보다 그 격에 변화가 있었다.⁶²⁾ 석씨집단의 족조인 탈해의 소상은 궐 안에 있다가 동악에 안치되는데, 그 시기는 문무왕 20년(680)으로 나온다.⁶³⁾ 동악은 토함산으로 탈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소이며 고려시대에는 동악대왕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⁶⁴⁾ 이로 볼 때, 시조신이었던 탈해는 신라 중대 이후 산신으로 그 신격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⁵⁾

56)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鏗知王 一云金鏗王 元嘉二十八年即位 明年爲世祖 許黃玉王后 奉資冥福於初與世祖合御之地 創寺曰王后寺”.

57) 김태식, 1998, 위의 글, 31~32쪽.

58) 권주현, 2009, 「왕후사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대구사학』 95, 55쪽. 한편, 사당에서 절로 전환된 것은 신라 중대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권주현, 2011,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의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66쪽.

59)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남해차차웅 3년.

60) 『삼국사기』 3 신라본기 3 소지마립간 9년;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61) 『삼국사기』 8 신라본기 8 신문왕 7년;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62)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채미하, 2014, 앞의 글 참고.

63) 『삼국유사』 1 기이 1 제4탈해왕.

64) 『삼국유사』 1 기이 1 제4탈해왕; 『삼국유사』 1 왕력 1 제4탈해이질금.

65) 채미하, 2014, 앞의 글, 186~187쪽.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에는 삼산·오악 이하의 명산대천제사가 대·중·소사에 편제되어 있다.⁶⁶⁾ 산에 대한 제사는 단순한 산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그 지역을 수호하는 신에 대한 숭배였고⁶⁷⁾ 조상신이기도 하였다.⁶⁸⁾ 고대인들은 높은 산을 하늘과 인간의 교섭처로 생각하였다. 즉 천신이 높은 산에 내려와 인간과 교통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산은 천제(天祭)를 지내는 제사장소이기도 하였다.⁶⁹⁾ 신라의 대사(大祀)에 편제된 것은 삼산은 원래의 성읍국가 사료가 고대국가 신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왕경 중심의 지배집단의 제사 대상이었다가 통일을 전후하여 호국여삼신(護國女三神)⁷⁰⁾의 활약으로 최고의 신성 산악으로 대사의 대우를 받았다.⁷¹⁾

통일 이전 신라에는 경주평야를 둘러싸고 오악이 있었는데,⁷²⁾ 선도산은 오악의 하나로 서악이었다.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에 서술, 선도산은 모량(牟梁)에 있었다고 한다.⁷³⁾ 모량은 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이 있었던 곳으로, 무산대수촌의 시조는 이산(개비산)에 내려왔다고 한다.⁷⁴⁾ 무산대수촌의 시조가

66)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채미하, 2007,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채미하, 2008, 앞의 책, 311~314쪽도 참고.

67) 명산대천제사의 대상은 자연적인 산악 자체이기 보다는 산악의 주재자라고 믿고 있는 산신에 대한 제사였다.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화사연구』, 일조각, 207쪽; 문경현, 1992,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제12집, 21~26쪽.

68) 산신은 대체로 각 지역의 조상신이라고 한다. 문경현, 1992, 위의 글, 26~28쪽.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채미하, 2007, 앞의 글; 채미하, 2008, 앞의 책, 303~330쪽 참고.

69) 『서경』 순전, “至于岱宗柴”.

70) 『삼국유사』 1 기이 1 김유신.

71) 이기백, 1995, 「신라 삼산의 의의」, 『한국고대사론 - 증보판 -』, 일조각, 147쪽.

72)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산천조에 토함산을 동악, 금강산을 북악, 함월산을 남악, 선도산을 서연산(서악)이라고 하고 있다. 『삼국사기』 41 열전1 김유신(상)에는 중악 단석산이 보인다.

73)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三山五岳已下 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 小祀 …… 西述(牟梁)”.

74)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 혁거세왕, “辰韓之地 古有六村 …… 三曰茂山大樹村

내려온 이산(개비산)과 촌명에 보이는 무산과 대수촌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무산대수촌은 대체로 경주 서편의 모양에 비정하고 있다.⁷⁵⁾ 특히 무산대수촌의 대수(촌)는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가 연상되는데, 신단수는 고조선 건국신화를 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 신시(神市)를 펼친 장소다.⁷⁶⁾ 이러한 신단수는 천·지·지하계의 접합점에 있는 성역이고 만물이 생성되며 태의(太儀)를 재현하는 성단(聖壇)을 상징한다고 한다.⁷⁷⁾ 세계의 신화에서 나무와 여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⁷⁸⁾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해 주기를 빌었고, 동맹제 때 신체로 모셔지는 나무상 즉 목수는 하백녀를 상징한다.⁷⁹⁾ 따라서 무산대수촌과 여신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산대수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선도산은 앞의 사료 B-2) ②에서 진우방국(鎭祐邦國)하는 영이(靈異)가 많아 나라가 건립된 이래 언제나 삼사(三祀)의 하나였고, 그 서열은 군망(群望)의 위에 있었다고 한다. 삼사는 대·중·소사로 파악하기도 하지만,⁸⁰⁾ 국가제사체계 즉 사전(祀典)⁸¹⁾을 말하

長日俱禮馬 初降于伊山(一作皆比山) 是爲漸梁部 又牟梁部孫氏之祖 今云長福部 朴谷村等西村屬焉 ……”.

- 75) 『삼국유사』 1 기이 1 智哲老王조의 冬老樹는 무산대수촌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무산대수촌은 舍羅里 일대의 목관묘와 목곽묘를 연결지을 수 있다. 채미하, 2011, 앞의 글, 87쪽.
- 76) 『삼국유사』 1 기이 1 고조선,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
- 77) 황패강, 1988, 「단군신화의 연구」, 『단군신화론집』, 새문사, 78쪽.
- 78) 장지훈, 1999, 앞의 글, 83~84쪽.
- 79) 수신과 부여신이 나무에 의탁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聖樹·聖林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고 있다고 하였다. 채미하, 2006, 앞의 글, 361쪽. 이와 관련해서 박원길, 1998, 『북방민족의 사마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447~479쪽; 나희라, 2005, 「고대 동북아 제민족의 신화, 의례, 군주관」, 『진단학보』 99, 4쪽을 참고.
- 80)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95쪽.
- 81) 『禮記』 祭義篇을 보면, “夫聖王之制 祭祀也 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禦大菑則祀之 能捍大患則祀之 …… 非此族也 不在祀典”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國語』 魯語(상)에는 “凡禘·郊·祖·宗·報 此五者 國之典祀也

기도 한다. 군망은 ‘오악·사진·사독’을 말하며⁸²⁾ 국가의 진산(鎭山)이다. 그리고 선도산은 서연(西鶯)·서술(西述)·서형(西兄)이라고도 불렸는데,⁸³⁾ 이들 이름은 최고라는 뜻을 가진 ‘수리’에서 파생된 것이며 ‘서쪽’에 이르는 방위를 가리키는 접두어가 붙은 것이다.⁸⁴⁾ 이로 볼 때, 선도산은 신라가 나라를 세운 이래로 국가제사의 대상이었고 진평왕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최고의 신성산악이었다.⁸⁵⁾

그런데 문무왕 말년 혹은 신문왕대에 오악은 국토의 사방과 중앙에 있는 산악으로 변하였고,⁸⁶⁾ 선도산은 소사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가

…… 非是 不在祀典”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전(祀典)은 일반제사가 아니라 국가제사의 의례나 그에 대한 기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사전은 ‘제사의 의례’ 또는 ‘제사 의례를 적은 전적(典籍)’으로 풀이된다. 羅竹風 主編, 1991, 『漢語大詞典』 7, 836쪽; 채미하, 1998, 『삼국사기』 제사지신라조의 분석 - 신라 국가제사체계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 『한국고대사연구』 13, 217~230쪽; 채미하, 2008, 앞의 책, 51쪽 참고.

82) 『예기』 곡례에 따르면 천지는 천지, 사방(사망), 산천, 오사(五祀)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산천과 오사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禮記』 曲禮 下, “天子祭天地·祭四方·祭山川·祭五祀 歲徧 諸侯方祀祭山川·祭五祀 歲徧”. 사방(사망)은 『주례』 소종백(小宗伯) ‘兆五帝於四郊四望四類亦如之’의 정현(鄭玄)의 주(註)에 ‘五嶽·四鎭·四瀆’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방(사망)제도가 성립할 때 해(海)역시 종교의례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사방(사망)에는 사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池田末利, 1981, 「四望·山川考」, 『中國古代宗教史研究 - 制度と思想 -』, 東海大學出版會, 142~143쪽. 이러한 사방(사망)제사는 隋代에는 중사에, 唐代에는 악, 진, 해, 독으로 중사에 편제되어 있다. 채미하, 2008, 「신라의 사해와 사독」, 『역사민속학』 26, 22~2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83) 홍순옥, 1991,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학회학술발표회논문집』 4, 신라문화선양회, 46쪽; 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317쪽.

84) 김선주, 2010, 앞의 글, 21~22쪽.

85) 강영경, 2012, 앞의 글, 57쪽에서 신라의 국가성장이 6촌장의 합의체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신라 왕은 박·석·김 3성의 교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도산 신모는 국모신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거나 고구려와 백제처럼 거국적인 승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사회에서 박씨 왕계의 사회적 위치와 비중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선도산 신모의 위치는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86) 이기백, 1974, 앞의 책, 207쪽;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三山五岳已下 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 西雞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已郡) 中父岳(一云公山 押督郡) ……”.

야의 정견모주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의 사료 A-1) ②에서 대가야 마지막 왕자의 세계를 정견모주로부터 기억한 것은 정견모주가 조상신으로의 권능을 대가야 멸망 직전까지도 유지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⁸⁷⁾ 하지만 대가야가 신라에 통합된 이후, 통일 이후 신라의 명산대천제사 중 소사인 가량악에 편제되었던 것이다.⁸⁸⁾ 선도산 신모는 신라 경명왕대 왕의 잃어버린 매를 찾아주어 봉작을 받기도 하였다.⁸⁹⁾ 이로 볼 때, 선도산 신모는 신라 말까지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 고대 신모는 건국신화에서 시조를 낳거나 양육하고 이후 그와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신모가 죽은 이후 국가제 의의 대상으로 추송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제 의에서의 신모에 대한 추송은 신모신앙의 흐름이 지속된 것과 상응하는 것이었다.⁹⁰⁾ 뿐만 아니라 신라에는 시조모와 시조비인 신모 외에도 운제산성모, 치술령 신모 등이 있었다. 운제산성모는 남해차차웅의 비로, 죽어서 영일현 서쪽에 있는 운제산의 성모가 되어 가뭄 때 기원하면 응함이 있다고 하였다.⁹¹⁾ 치술령 신모는 제상의 부인으로 왜에 간 제상이 돌아오지 않자 치술령에 올라 왜를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었는데, 치술신모가 되었다고 한다.⁹²⁾ 앞에서 살펴본 ‘호국삼여신’ 역시 신모신앙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7) 서철원, 2008, 「대가야 건국신화와 비교를 통해 본 백제 건국신화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와 관련해서 나희라, 2009, 앞의 글, 126~127쪽도 참고하기 바란다.

88) 김태식, 1996, 「대가야의 세계와 道設智」, 『진단학보』 81, 11, 16쪽. 그리고 김태식은 16~17쪽에서 대가야군 소재 推心의 主神은 대가야시조 伊珍阿跋王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89) 『삼국유사』 5 감동 7 선도성모수희불사, “第五十四景明王好使鷹 嘗登此放鷹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90) 천혜숙, 2002, 앞의 글, 31~33쪽.

91) 『삼국유사』 1 기이 1 제이남해왕.

92) 『삼국유사』 1 기이 1 나물왕 김제상. 제상의 부인은 제상이 죽은 이후 국대부인으로 책봉되었으며, 『삼국유사』 1 王曆 1 第十八實聖麻立干조에는 실성이 바로 치술의 아버지라고 하였다(王即鴉述之父)고 나온다.

이처럼 한국 고대 신모에 대한 숭배의 형태는 다양하였고 이들은 국가제의를 통해 추송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옹녀를 숭배한 유적이거나 유물 등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지만, 후대의 신모 숭배 전통에서 옹녀 역시 신모로 추송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⁹³⁾

IV.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變移)

한국 고대 신모에 대한 추송은 한국 고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 사료가 관심을 끈다.

E-논하여 말한다. …… 1) 政和 연간(1111~1117)에 우리 조정은 尙書 李資諒을 宋에 보내 조공하였다. 臣 富軾이 文翰의 임무를 띠고 보좌하여 갔다. 佑神館에 이르러 한 집에 선녀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다. 館伴學士 王黼가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 나라의 신인데, 공들은 이를 아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말하기를, “옛날 帝室의 딸이 남편 없이 잉태를 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바다에 배를 띄워 辰韓으로 가서 아들을 낳아, 海東의 시조왕이 되었다. 황제의 딸은 地仙이 되어 오래도록 仙桃山에 있는데, 이것이 그녀의 像이다”라고 하였다.

2) 신은 또 송의 사신 王襄이 東神聖母에게 제사지내는 글을 보았는데, “賢人を 잉태해 나라를 처음 세웠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에 東神이 곧 선도산 聖母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을

93) 강영경, 2012, 앞의 글, 54~58쪽.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⁹⁴⁾

위의 사료 E-1)에서 김부식은 문한의 임무를 띠고 송에 갔다가 우신관에서 여선상(女仙像)을 보았는데, 송인(宋人) 왕보(王黼)는 여선상을 선도산 성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E-2)에서 김부식은 왕양(王襄)의 「제동신성모문(祭東神聖母文)」의 동신성모를 선도산 신모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이 주목된다.

F-동신사는 宣仁門 안에 있다. 땅이 좀 편평하고 넓은데, 정전의 집이 낮고 누추하며 행랑과 월랑 30칸은 황량하게 수리하지 않은 채로 있다. 정전에는 ‘東神聖母之堂’이란 방이 붙어 있고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이 神像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夫餘의 처인 河神의 딸이라고 한다. 그녀가 朱蒙을 낳아 고려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전부터 사자가 이르면 관원을 보내어 奠祭를 마련하는데 그 牲牢와 酌獻은 승산신에 대한 법식과 같다.⁹⁵⁾

사료 F에 따르면 동신사, ‘동신성모지당(東神聖母之堂)’에는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부여의 처인 하신(河神)의 딸로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낳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동신성모는 곧 주몽의 어머니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도 관심을 끈다.

94) 『삼국사기』 12 신라본기 12 경순왕 말미, “論曰 …… 1) 臣富弼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2)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

95) 『신화봉사고려도경』 17 사우 동신사, “東神祠 在宣人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東神聖母之堂 以帟幕蔽之 不令人見 神像蓋刻木作女人狀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 爲高麗始祖 故祀之舊例 使者至則遣官設奠 其牲牢酌獻如禮崇山神式”.

G-壓兵祭, 醮, 南海神, 城隍神祠, 川上祭, 老人星, 五溫神, 名山大川, 箕子祠, 東明聖帝祠, 藝祖廟, 祿祭, 蠶祭, 天祥祭, 東神祠, 松嶽廟, 木覓神祠, 道哲, 崑梯淵.⁹⁶⁾

위의 사료 G는 『고려사』 예지 길례에 보이는 잡사를 연대기 자료를 바탕으로 열거한 것이다. 이 중 동신사는 동신성모를 모신 사당으로 다른 신사들과 함께 고려의 국가제사체계 중 잡사에 편제되어 있다.⁹⁷⁾ 다음은 동신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 H-1) ① 禮部에서 “초여름부터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고, 또 廣州에서는 田野가 타들어가 올해 농사를 거의 포기할 지경이라는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松岳·東神堂, 모든 사당, 山川·朴淵 등 다섯 곳에서 이례마다 한 번씩 기우제를 지내고, 또 광주 등 여러 주군들도 각자 기우제를 지내게 하십시오”라고 건의하였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⁹⁸⁾
- ② 大廟·八陵 및 松嶽·東神祠에서 기우제를 지냈다.⁹⁹⁾
- ③ 松嶽·東神祠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¹⁰⁰⁾

96) 『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97) 『고려사』 예지 길례의 잡사는 대·중·소사와는 달리 의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연대기만 남아 있다. 연대기 자료는 제사 거행 사실, 祠廟의 건립, 祀典에 대한 언급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잡사는 『삼국사기』 제사지, 『세종실록』 오례나 『국조오례의』에는 없는 항목으로, 고려 국가제사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고려의 국가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김철웅, 2001, 「고려시대 잡사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쪽; 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98) 『고려사』 8 세가 8 문종 11년 5월 戊寅, “禮部奏 自孟夏 雨澤愆期 又廣州報 田野乾焦 殆失歲望 請於松岳·東神堂·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 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 各行祈雨 制可”; 『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文宗 十一年 五月 戊寅 禮部奏 謹按 今自孟夏 雨澤愆期 又廣州牧報 田野乾焦 殆失歲望 請於松岳·東神堂·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 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 各行祈雨 制可”.

99) 『고려사』 11 세가 11 숙종 5년 6월 을묘, “禱雨于大廟八陵及松嶽東神祠”.

100) 『고려사』 12 세가 12 예종 2년 3월 갑신, “禱雨于松嶽東神祠”.

- 2) ① 숙종 4년(1099) 8월 丙子 祈晴于松岳·東神·川上·諸神廟·朴淵 등 5곳에서 祈晴祭를 지냈다.¹⁰¹⁾
- ② 숙종 5년(1100) 6월 乙卯 大廟·八陵 및 松嶽·東神祠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¹⁰²⁾
- ③ 예종 2년(1107) 4월에 가물었다. 戊辰에 朴淵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甲申에 松岳·東神祠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¹⁰³⁾
- ④ 예종 11년(1116) 4월 丁卯 사신을 上京의 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 및 西京의 木覓·東明祠·道哲岳梯淵에 보내 기우제를 지냈다.¹⁰⁴⁾
- ⑤ 인종 8년(1130) 戊子 조서를 내려 거듭 기우제를 지내 비를 빌려고 하니, 태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반드시 먼저 川上·松岳·東神廟·神廟·栗浦·朴淵에 기도하고 나서 뒤에 거듭 기우제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兩京을 비롯해 전국에서 행해지는 공·사의 모든 토목공사를 중지시켜야 마땅합니다” 왕이 그 말을 따랐다.¹⁰⁵⁾

위 사료 H-1) ①에 따르면 고려 문종 11년(1057) 예부의 건의 중에 동신당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동신당은 고려 초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문종대의 당(堂)(H-1) ①은 숙종대부터 사(祠)로 나오며

101) 『고려사』 54 지 8 오행 2 목, “肅宗四年 八月丙子 祈晴于松岳東神川上諸神廟朴淵等五所”.

102) 『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肅宗五年 六月乙卯 禱雨于大廟·八陵 及松嶽·東神祠”.

103) 『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睿宗二年 四月 旱 戊辰 禱雨于朴淵 甲申 禱于松岳·東神祠”.

104) 『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睿宗十一年 四月丁卯遣使祈雨於上京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及西京木覓東明祠道哲岳梯淵”.

105) 『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仁宗八年 戊子 詔再雩祈雨 太史奏 必先祈川上·松岳·東神·諸神廟·栗浦·朴淵而後 再雩 可也 宜當兩京內外公私 罷土木興作之役 從之”.

(H-1) ②·③과 H-2) ②), 인종 8년(1130)(H-2 ⑤)까지 동신사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료 F의 『고려도경』을 보면 사자가 오면 관원을 보내어 전제(奠祭)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사료 E-2)에 보이는 왕양은 동신사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제문이 「제동신성모문」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보면 “현인을 잉태해 나라를 처음 세웠다”고 하였는데, 왕양은 동신성모라고만 하였고 그것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사료 E-1)에서 김부식은 사신으로 간 경험(왕보의 설명)을 통해 E-2)에 보이는 왕양의 「제동신성모문」의 동신성모를 선도산 신모로 여겼다.¹⁰⁶⁾

사료 C를 보면 『삼국유사』에는 선도산 신모와 혁거세·알영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켰다. 하지만 사료 E-2)에서 김부식은 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다.¹⁰⁷⁾ 아마도 이것은 선도산 신모에 앞서 서술된 3성 시조에 대한 전승¹⁰⁸⁾과 선도산 신모에 대한 전승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동신사는 선인문(宣人門) 안에 있는데, 선인문은 개경으로 들어오는 문 중의 하나였다.¹⁰⁹⁾ 유희와 짝하는 주몽을 모신 사당인 동명성제사는 서경에 있었다. 따라서 김부식은 동신사의 동신성모는 유희라기 보다는 선도산 신모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이 김부식은 선도산 신모 전승이 3성 시조 전승과 차이가

106) 김선주, 2010, 앞의 글, 8~9쪽에서 신라에는 공식화된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와는 다른 계통의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었고 이것을 알고 있던 김부식은 시조모로서 의미를 가진 선도산 신모 이야기를 신라본기 말미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실은 것으로 보인다.

107) 김부식은 선도산 신모가 낳은 ‘해동의 시조가 된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을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선도산 신모 전승은 신라의 건국신화로 그의 미가 부정되기도 하였다. 서대석, 2001, 앞의 책, 101~102쪽.

108) 『삼국사기』 12 신라본기 12 경순왕 말미.

109) 『고려사』 56 지 10 지리 1 왕경개성부조에 羅城에 축조된 성문에 대하여 大門 4, 中門 8, 小門 13 등 전체 25개를 기술하고 있다. 이 중 선인문은 황성 동문으로 여겨지는데(신안식, 2000, 「고려시대 개경의 나성」, 『명지사론』 11·12; 신안식, 2000, 「고려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고려도경』에서 선인문을 나성의 정동문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157~158쪽).

있었고 유화와 짝하는 주몽의 사당이 서경에 있었기 때문에, 인종 23년(1145)에 편찬된 『삼국사기』에 선도산 신모를 동신성모로 채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료 E-2)에서 보듯이, 왕양이 고려에 온 것은 예종 5년(1110) 6월이고¹¹⁰⁾ 7월에 돌아갔다.¹¹¹⁾ 사료 F에서 서궁이 송도를 다녀간 것은 선화 5년(고려 인종 1, 1123)이다. 사료 H에서 동신사에 대한 제사는 문종 11년(1057)부터 인종 8년(1130)까지 기록되어 있다. 사료 E-1)의 정화 연간은 1111~1117년이며 김부식이 문한의 임무를 띠고 송에 간 것은 1116년이다. 이처럼 왕양과 서궁이 고려에 온 시기, 동신사에 대한 제사가 시행된 시기, 김부식이 송에 간 시기는 그리 멀지 않다. 이로 볼 때, 당시 동신성모에 대한 전승은 유화와 선도산 신모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¹¹²⁾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사료 E에 보이는 동신성모는 특정 나라를 떠나 예부터 전래되어 온 신모를 지칭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아마도 동신성모는 한국 고대 신모가 고려시대에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¹¹³⁾ 한국 고대 신모의 통칭으로 여겨진다.¹¹⁴⁾

110) 『고려사』 13 세가 13 예종 5년 6월辛巳(14), “宋遣王襄張邦昌來, 以叅知政事李瑋, 殿中少監左承宣韓儼如爲館伴”. 『고려사』 13 세가 13 예종 5년 6월 癸未(16); 『고려사』 65 지 19 예 7 빈례 예종 5년辛巳·癸未 참고.

111) 『고려사』 13 세가 13 예종 5년, “秋七月 戊戌朔 王襄等還 ……”.

112) 김준기, 1995, 『한국의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67~71쪽에서 본래 독립된 산신 유래담으로 전승되던 신모계 신화가 고려 이후 민간층에서 형성되어 유포되면서 기존의 건국신화를 잠식하여 국조신화로 역변이화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부여와 고구려에서 신봉되던 동신성모 유화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쳐 고려 때까지 계속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기 어려워 선도성모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천혜숙은 우신관에 있는 동신성모는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이며 선도성모를 동신성모로 본 것은 김부식의 지난친 방중의옥이라고 하였다. 천혜숙, 2007, 「서술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고대학』 16, 183쪽. 한편, 김선주, 2010, 앞의 글, 9쪽에서 고려는 고구려 의식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유화가 고려시대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면서 김부식이 동신성모를 선도성모로 한 것은 단지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서의 의미였다고 보았다.

113) 박상란, 2005,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주), 184~185쪽.

114) 김선주, 2010, 앞의 글, 10쪽에서 신라에는 혁거세를 비롯하여 탈해·알지 등 왕계를 형성한 3성의 시조전승이 있었지만, 시조모는 이들 3성 시조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김부식은 시조모 관련 전승을 소개하면서 특정 시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결을 피했다고 보았다.

한편, 고려 초기에 건립된 동명성제사는 고려 말까지 그 기록이 보이며¹¹⁵⁾ 조선 세종 11년(1429)에는 동명왕이 기사자 남쪽 인근의 단군사에 단군과 함께 모셔지게 된다.¹¹⁶⁾ 반면, 동신사와 관련된 기록은 고려 초기까지만 등장한다. 사료 F를 보면 동신성모당은 정전이 누추하며 행랑과 월랑은 황량하며 수리지 않은 채로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즈음해서 동신사에 대한 관심과 그 제사가 쇠락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한국 고대 신모는 조선시대에 각 지역의 수호신으로 머물렀다.¹¹⁷⁾ 그런데 유화는 고려왕실에서 왕권을 생성하는 원리를 실현하기도 하였다.¹¹⁸⁾ 선도산 신모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주목된다.

I-1) …… 어느덧 聖子 낳고 聖智聖母(智異山の天王이다) 道誥시켜 明堂
이라 일러주며 帝王基地 분명하니, 이로써 王姓 삼다. ……¹¹⁹⁾

2) 聖母祠(사당이 둘이다. 하나는 지리산 천왕봉 위에 있고, 하나는 군
남쪽 엄천리에 있다. 고려 이승휴의 帝王韻記에 “성모는 태조의 모친

115) 김창현, 2005,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숭배와 민간신앙」, 『역사학보』 188;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 국가제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참고.

116)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 “檀君祠在箕子祠南(今上十一年己酉始置 與高麗始祖東明王合祠 檀君在西 東明在東 皆南向 每春秋 降香祝致祭)”; 『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사묘, “東明王祠(在箕子祠傍二祠 同宇 檀君在西 東明在東 俱南向 每春秋降香祝祭以中祀 本朝世宗十一年始置)”. 이와 관련해서 김태영, 1995, 「국가제사」, 『한국사』 26, 238~243쪽; 김창현, 2005, 위의 글, 126쪽; 김영관, 2005, 「고구려 동명왕릉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명왕릉 중수기」, 『고구려연구』 20, 314~318쪽; 채미하, 2009, 위의 글, 170쪽 참고.

117) 김지영, 2010, 「지리산 성모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과 태도」, 『역사민속학』 34, 333~334쪽.

118) 유화는 고려왕실에서 왕권을 생성하는 원리를 실현하면서 서궁이 『고려도경』에 기록하였듯이, 고려 초기까지 ‘신모’, ‘성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채미하, 2006, 앞의 글, 367쪽.

119)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 선대기, “…… 於焉誕 聖智聖母(智異山天王也) 命誥師 指此明堂 謂斯爲種稔田 因以爲王氏 ……”.

威肅王后라 한다”고 하였다).¹²⁰⁾

- 3) …… 내가 일찍이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읽어보니 聖母가 洗師에게 명하였다(聖母命洗師)는 구절의 註에 “지금의 智異天王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고려 태조의 어머니[妣] 威肅王后를 가리킨다. 고려 사람들이 仙桃聖母의 說을 익히 듣고서 그 임금의 계통을 신성시하고자 하여 지어낸 것이 이 이야기이다. 승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제왕운기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증명할 수 없다. ……¹²¹⁾

위의 사료 I-1)을 보면 『제왕운기』의 성지성모는 고려 태조의 비인 위숙왕후를 가리키는데, 성지성모는 지리산천왕(智異山天王)이라고 하였다. 김관의의 『편년통록』에 의하면 왕릉이 일찍이 꿈에 한 미인을 만나 부인으로 삼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후에 송악으로부터 영안성¹²²⁾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 드디어 혼인하였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 세상에서는 몽부인이라 부르고 혹은 그 부인이 삼한의 어머니라 하여 그 성을 한씨라 하였다고도 한다.¹²³⁾ 이처럼 『편년통록』에서는 위숙왕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왕운기』를 보면 위숙왕후는 지리산과 연결되어 있다. 다음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지리산 관련 내용이다.

120) 『신증동국여지승람』 31 함양 사모, “聖母祠有二 一在智異山天王峰頂 一在郡南嚴川里高麗李承休帝王韻紀 太祖之母威肅王后也”.

121) 『점필재집』 2 유두류록, “…… 余嘗讀李承休帝王韻記 聖母命洗師 註云 今智異天王 乃指高麗太祖之妣威肅王后也 高麗人習聞仙桃聖母之說 欲神其君之系 創爲是談 承休信之 筆之韻記 此亦不可徵 ……”.

122) 황해북도 개풍군 남포리에 있는 옛 성. 예성강 입구 동쪽 강안에 위치한 평산성이다. 9세기경에 축성한 토성이다.

123) 『고려사』 序文 高麗世系, “(隆) 貌魁偉美鬚髯 器度宏大 有并吞三韓之志 嘗夢見一美人 約爲室家 後自松嶽 往永安城 道遇一女肖 遂與爲婚 不知所從來 故世號夢夫人 或云 以其爲三韓之母 遂姓韓氏 是爲威肅王后”.

J-1) 본래는 백제의 古龍郡이다. …… 智異山이 있다(地理라고도 하며 頭流이라고도 하고 方丈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南嶽이었고 中祀에 올랐다. 고려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¹²⁴⁾

2) (현종) 11년(1020) 5월 戊辰(18) 智異山이 무너졌다.¹²⁵⁾

3) 명종 17년(1187) 4월 癸酉(2) 智異山 神像의 머리가 홀연히 없어져 왕이 中使를 보내 그것을 찾게 하였다. 수개월 후에 찾았다.¹²⁶⁾

4) (충렬왕 원년(1275) 6월) 洪子藩에게 명하여 智異山에 제사지내게 하였다.¹²⁷⁾

위의 사료 J에 따르면, 지리산은 신라 때 남악으로 중사의 하나였는데,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고(J-1) 그 곳에서 제사를 지냈음(J-4)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리산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보이며(J-2)), 지리산 신상의 머리가 홀연히 사라지는 변고가 생겼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 왕이 친히 관리로 보냈다고 하였다(J-3)).¹²⁸⁾

이처럼 지리산은 고려시대 중사의 하나로, 여기에서는 사료 J-3)을 보면 신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 신상은 지리산천왕으로, 지리산천왕은 당시 위숙왕후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지리산과 위숙왕후와의 결합은 고려 명종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승휴는

124) 『고려사』 57 지 11 지리 2 전라도 남원부, “本百濟古龍郡 …… 有智異山(一云地理一云頭流 一云方丈 新羅爲南嶽 躋中祀 高麗仍之)”.

125) 『고려사』 55 지 9 오행 3 토, “(顯宗) 十一年 五月戊辰 智異山頽”.

126) 『고려사』 55 지 9 오행 3, “明宗十七年 四月癸酉 智異山神像頭忽亡 王遣中使索之 數月乃得”.

127) 『고려사』 28 세가 28, “(忠烈王 元年 六月) 命洪子藩 祠智異山”.

128) 김지영, 2010, 앞의 글, 323쪽.

『제왕운기』에서 성지성모, 즉 위숙왕후를 지리산천왕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료 I-2)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성모는 태조의 모친 위숙왕후라고 하였고 I-3)에서 김종직은 일찍이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읽었더니 ‘성모명선사(聖母命誥師)’의 주에 이르기를 ‘지금의 지리산 천왕’으로, 고려 태조의 비인 위숙왕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김종직은 고려 사람들이 선도성모의 이야기를 익히 듣고 그들 임금의 계통을 신이하게 하고자 지어낸 것이라고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도산 신모는 중국에서 이동하여 선도산에 정착해 왕조의 시조를 낳아 나라를 열었으며 나라에 큰 난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진호하고 도와주었다. 위숙왕후는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동하여 지리산과 연결되어 천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 볼 때, 위숙왕후를 지리산천왕으로 본 것은 선도산 신모를 모방하여 이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⁹⁾ 이와 같은 이식은 고려 왕조의 건국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의도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 고대 신모가 지닌 왕권생성원리가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 보이는 신모를 살펴보고,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 신모의 추승을 국가제의와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동신성모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신모는 시조모와 시조비로 대별된다. 이 중 시조모는 천신과 혼인하

129) 천혜숙, 2002, 앞의 글, 34쪽; 송화섭, 2007, 「地異山の老姑壇과 聖母天王」, 『한국도교문화』 27, 247~249, 263쪽; 김지영, 2010, 앞의 글, 333~334쪽.

거나(웅녀·유화·정견모주) 배우자 없이 아들을 낳은 존재(선도산 신모)였다. 시조비로는 알영과 허왕후가 있으며, 소서노는 시조모이자 시조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건국신화를 보면 신모 중 시조모는 시조를 낳고 양육하고는 건국 이후에는 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신모가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소외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유화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시비·시아-하백녀-하백녀 유화로 나오며 그 성격도 수신적 성격뿐만 아니라 신모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선도산 신모 역시 6촌장 세력과 연합하면서 신모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신라 중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고대 건국신화가 시기에 따라 변하여도 유화와 선도산 신모가 지닌 시조모로서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고대 신모 중 유화는 태후묘, 수신제, 신모에서 ‘태후’, ‘수신’, ‘부여신’으로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고구려 내내 추송받았다. 선도산 신모 역시 신라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다. 이와 같이 국가제의에서 신모에 대한 추송은 한국 고대 신모신앙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도산 신모는 신라 중고기까지는 신라 최고의 제사 대상이었지만, 통일 이후 그 격에 변화가 있었다. 고구려가 주몽신화를 중심으로 건국신화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신라는 3성 시조신화가 있었다. 그리고 3성 시조와 관련된 국가제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였다. 게다가 통일을 전후하여 ‘호국삼여신’을 모시는 삼산이 대사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도산 신모는 국가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선도산 신모는 유화와 마찬가지로 신라 말까지 신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았다.

유화와 선도산 신모는 고려시대 동신성모로 전승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동신성모는 한국 고대 신모를 통칭한 것이 아닐까 하였다. 특히 김부식이 선도산 신모를 동신성모라 한 이유는 3성 시조 전승과 선도산 신모 전승이 차이가 있었고 유화와 짝하는 주몽의 사당이 서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고려시대 동신성모를 모신 동신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으며 조선시대에 한국 고대 신모는 각 지역의 수호신으로 물러났다. 이것은 고려와

조선에서 역대 시조를 국가제사의 하나로 중시한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고대 신모의 왕권생성원리는 여전하였으며, 이 중 선도산 신모는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와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를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영경, 2012, 「단군신화에 나타난 용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 권주현, 2009, 「왕후사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대구사학』 95.
- 권주현, 2011,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의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 김상기, 1964, 「國史上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 5-1,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 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위상」, 『사학연구』 99.
- 김준기, 1995, 「한국의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0, 「지리산 성모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과 태도」, 『역사민속학』 34.
- 김철웅, 2002,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118.
- 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 김철준, 1990,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태식, 1996, 「대가야의 세계와 道設智」, 『진단학보』 81.
- 멀치아 엘리야테, 1993, 『종교사개론』, 까지.
- 문경현, 1992,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2, 신라문화선양회.
- 박상란, 2005,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주).
- 서대석, 1998,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5.
- 서대석, 200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 서영대, 1994, 「민속종교」, 『한국사』 16.
- 서철원, 2008, 「대가야 건국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백제 건국신화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송정화, 2003, 「중국여신의 특징에 대한 소고」, 『동아시아여성신화』, 집문당.
- 송화섭, 2007, 「地異山の 老姑壇과 聖母天王」, 『한국도교문화』 27.
- 이지영, 1995,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장지훈, 1999,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사학연구』 58·59.
- 조동일, 1999, 「시조도래 건국신화의 시조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 조현설, 1999,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 조현설, 2003,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 채미하, 2006,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 국가제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 채미하, 2011,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 채미하, 2014,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 천혜숙, 2002, 「'父性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 천혜숙, 2007, 「서술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고대학』 16.
- 최문형, 2000, 「단군신화의 여성상과 여성원리에 나타난 통일이념」, 『단군학연구』 4.
- 한영화, 1999, 「고구려 지모신신앙과 母處制」, 『사학연구』 58·59.
- 황패강, 1988, 「단군신화의 연구」, 『단군신화론집』, 새문사.

[국문 초록]

한국 고대 신모(神母)와 국가제의(國家祭儀) -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

채미하

이 글은 건국신화와 국가제의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역사성과 그 추승을 살펴 보았으며 그것의 변이는 고려시대 동신성모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다. 우선 신모는 시조모와 시조비로 대별되는데, 이 중 시조모는 시조를 낳고 양육하고는 건국 이후 사라진다. 하지만 신모가 지닌 시조모로서의 역할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가 시기에 따라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 고대 신모 중 유화는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고구려 내내 추승받았고 신라의 선도산 신모 역시 그러하였다. 하지만 선도산 신모는 유화와는 달리 그 격에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주몽신화를 중심으로 건국신화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신라는 3성의 시조신화가 있었고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시조제사의 격에 변화가 있었다. 선도산 신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선도산 신모는 고려시대에 유화와 함께 동신성모로 인식되었는데, 김부식은 동신성모를 선도산 신모로 파악하였다. 한편, 한국 고대 신모의 왕권생성원리는 고려시대 이후에도 여전하였는데, 선도산 신모의 경우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를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건국신화, 국가제의, 신모, 시조모, 시조비, 지모신, 웅녀, 유화, 정견모주, 선도산 신모, 알영, 허왕후, 소서노, 동신사, 동신성모, 위숙왕후

[ABSTRACT]Sinmo and State Religious Ceremonies in Ancient Korea
- Focused on Yuhwa and Seondosan Sinmo -

Chai Miha

This study focuses on Sinmo as shown in Korea's ancient birth myth, and on understanding the status of ancient Sinmo focused on Yuhwa and Seondosan Sinmo as related to state religious ceremoni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s ancient Sinmo by the Dongsin Seongmo, of the Goryeo dynasty, also is treated.

First, Sinmo is largely differentiated in to Sijomo and Sijobi. Sijomo married Cheonsin, or the existence that gave birth to a son without a spouse. Sijobi was represented by Alyeong and Heo wanghu, and Soseono was both Sijomo and Sijobi. However, the earthly - mother - goddess of Sijomo was reflected in the ever changing Korean ancient birth myth. Given from above, the historical feature of Korea's ancient Sinmo was well understood.

Yuhwa of Korea's ancient Sinmo had been chosen to be worshipped as Taehu, Susin, and Buyeoshin in each of Taehumyo, Susinje, and Sinmyo as the subject of state ancestral rites during the Goguryeo period. Seondosan Sinmo also had been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the state ancestral rite during the middle period of Silla and remained so until late Silla, though there was a status change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Silla. While the origin myth of Goguryeo focused on the myth of Jumong, Silla's origin myth included the myth

of the progenitors of the three surnames. And the state ancestral rites related to the progenitors of the three surnames were later chang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Further, the three goddesses protecting the country represented three mountains which were the subjects of important rites from Unified Silla,

Dongshin Seongmo in Goryeo was generally named for the ancient Sinmo, and Yuhwa and Seondosan Sinmo both were chosen in early Goryeo, while only Seondosan Sinmo was chosen after Goryeo's middle period. This was because the Seondosan Sinmo myth differed from the myth of the three progenitors. Another reason was that the shrine of Jumong, who mated with Yuhwa, was located in Seogyeong. Meanwhile, the origin of the regal power of Seondosan Sinmo was related to Queen Wisuk, who was the mother of the first king of Goryeo, and we found the meaning of ancient Shinmo in the Goryeo dynasty. These meanings may be compared with that for each progenitor, and were considered important as a state ancestral rite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Keywords

country birth myth, state religious ceremony, Sinmo, Sijomo, Sijobi, early - mother - goddess, Woongnyeo, Yuhwa, Jeonggyeonmoju, Seondosan Sinmo, Ayeong, Soseono, Dongsinsa, Donghin Seongmo, Queen Wisuk